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nho & Yeonji Park
 Faith International Academy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4월

선교편지 제 100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예일 교회는 교회가 설립이 된 이후 2년차가 되는 금년에서야 제직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하는 교인 모두가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신앙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까닭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일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즉, 예배의 우선 순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예고(?) 없이 교회 출석이 불규칙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예배 중에 떳떳하게 화장실에 수시로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들고 집에도 가지고 가는 까닭에, 나중에 먹는 사람들의 음식이 모자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년여간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하기 보다는 성경을 통한 교육과 훈련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2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 '신뢰', '시간' 등에 무감각했던 일반적인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고, '나눔', '배려', '희생' 등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결석 하고 지각을 한다는 것이 죄송한 일이 되었고, 친교 시간에 줄을 서서 음식을 규모있게 나눌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된지 2년만인 금년 초에 마침내 14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무엇 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즉 성수 주일을 우선으로 하는 교인들 중에서 교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새롭게 6개의 부서를 조직하여 역할을 나누고, 지금까지 현직인 교역자를 통하여 담당하게 했던 교회 재정도 새로 임명된 두 명의 재정 집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매주 제직들을 위한 별도의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집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시작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해 지고 있음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 중의 한 분인 '인다이' 부인이 금년에 집사로 임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직을 위한 제자 훈련에 매주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참석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비록 제직이 아니더라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인다이' 부인은 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직회'에도 아주 당연하게 매월 참석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난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전과 달리 주일 예배 시간전에 실시하는 '성경 일독'에 참석하기 위하여 손자와 함께 가장 먼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친교 시간에 사용했던 식탁보를 세탁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가는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다이' 부인과 대화를 나눌 때면, 언제나 수줍음으로 입을 가리고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빨이 다 빠져서 말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다 알아듣고 있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 외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다이' 부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인다이' 부인이 이번에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힘들지만 '인다이' 부인과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인다이' 부인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새로 임명된 제직들이 하는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제직들의 제자 훈련과 제직회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나이가 많지만 잘 배워서 본인 자신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시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3월 26일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다이' 부인을 기쁜 마음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3월 마지막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3년전 나무와 잡초로 무성했던 현재의 교회 부지를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매하고, 10개월 정도의 건축 기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던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후 마침내 감격적으로 교회가 건축된 과정이 주마등처럼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 될 수 있도록 순간 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롭습니다.

이번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는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주일보다 한 시간 일찍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전교우 모두 인근 해변으로 '소풍'을 가서 점심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전부터 제직들이 모여서 예배 담당, 친교 담당, 차량 담당, 식사 담당등을 정하고,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사들을 현지 교역자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세 계획 및 준비를 제직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게 되어서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담당은 '제직', '제자 훈련반', '학생부' 및 '유년부'의 특별 찬양과 순서를 계획하고, 매주 토요일 마다 연습을 시작 하였습니다. 식사 담당은 예산 내에서 각종 메뉴를 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당일 교회로 가져 오는 것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풍에는 이곳의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에 가장 중요한 메뉴인 '레촌 바보이 (통돼지 구이)'도 전교인이 먹을 수 있는 큰 사이즈로 준비하기로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창립 기념 주일에 대한 기대를 더욱 더 크게 했습니다. 차량 담당은 많은 인원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프니'를 렌트 하고, 동원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확인해서 전교인 이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친교 담당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찬양과 게임등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3월 26일이 되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한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 준비된 부서별 특별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종 시상도 하고, 2명의 서리 집사를 새롭게 임명하며 창립 2주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인근 해변으로 축하 소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지만,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수영복과 같은 옷을 입혀서 온 부모들도 있고, 맛있는 냄새가 예배당으로 솔솔 흘러 들어와서 빨리 소풍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 였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교회에는 오지 않았지만, 점심 식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굴에 웃음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지만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서머나 교회 와 빌라델비아 교회 처럼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29)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